

강신재 1950년대 단편의 신뢰할 수 없는 서술 연구

박 보 림*

요약

이 글은 전쟁 중 공산주의(자)와 관계 맺는 여성-부역자 인물이 등장하는 강신재 1950년대 단편소설을 내러티브 장치의 신뢰성이라는 분석 틀로 조망함으로써 강신재 문학과 전후 반공주의 지배담론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동일한 유형의 인물이 등장하는 이종 제시 소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술 수준에 따라 서술의 신뢰 양상이 달라지는 양상을 살펴본다. 이어서 네 편의 동종 제시 소설을 대상으로 보고, 평가, 해석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의 양상을 분석하고, 그 미학적 효과를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강신재 1950년대 단편의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은 성규범의 위반이 적치하의 부역과 연동되어 윤리적 타락으로 귀결되는 매커니즘을 의문시하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강신재의 50년대 문학이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이라는 미학적 장치를 통해 지배담론과 가부장제의 공모에 대한 문학적 대응을 수행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주제어: 강신재, 1950년대 문학, 반공주의, 신뢰할 수 없는 서술, 동종제시, 전후 문학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목차

1. 들어가며
2. '위장 공산주의자'라는 규정과 '국외자'라는 고백 - 「산기슭」
3. 잘못된/불충분한 보고와 여성 부역자 표상의 재구성 - 「포 선생 수난기」, 「포말」
4. 믿을 수 없는 서술과 서술자의 진실 - 「제단」, 「향연의 기록」
5. 나가며

1. 들어가며

강신재(1924-2001) 문학 연구는 1950년대에 발표된 단편들의 문체적 참신함에 주목한 당대 비평을 시작으로, 1990년대 이전까지는 문체적 특성과 여성적 감수성에 대한 비평적 논의들이 중심을 이루어 왔다. 1990년대 이후 여성 문학 연구의 본격적인 전개와 함께 젠더 의식에 주목한 연구들이 제출되었지만,¹⁾ 1950년대 단편에서 반복적으로 형상화되는 전쟁 체험의 의미와 이데올로기 인식 문제는 논의되지 못해왔다.²⁾ 2000년대 이후

1) 김미현, 「서정성, 감각성, 여성성」, 『현대문학의 연구』 8, 한국문학연구학회, 1997.; 김양신, 「전후 '감상적' 여성소설의 계보-감상성과 시대성의 관련양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문학회』 『여성문학연구』 36, 2015.

2) 심진경은 강신재 문학 연구에서 1950년대 단편들에 대한 논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1960년대 단편들의 '여류적'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음을 지적하며, 이것이 1950년대 문학이 '전후문학적 특징'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경향과 관련이 있음을 지적한다. '문단문학' '신세대 작가'라는 범주로 특징지어지는 '전후문학'의 범주에서 여성 작가들의 작품이 제외될 수 밖에 없었기에, 강신재 문학 역시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심진경, 「전쟁과 여성 색소얼리티」, 『현대소설연구』 39,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59-60면.) 나보령은 1990년대 이후 전개된 강신재 문학에 대한 여성주의적 접근 역시 사실상 초기 연구에서 부각된 여성적 특질을 그대로 이어받아 신화화하였을 뿐 강신재 문학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가능하게 하지는 못했으며, 이러한 탈역사적 접근 방법을 통해 당대 문단에서의 강신재 문학의 의미를 규명하기 못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나보령, 「강신재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

공산주의(자)와 연루되는 여성 인물의 문제적 성격에 주목한 논의들이 제출되기 시작하면서, 강신재 문학을 당대의 정치·사회적 현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탐구하는 흐름이 형성되었다.³⁾ 그리고 2010년대 이후에는 문학적 전통의 수립과 문학사 서술의 젠더 구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강신재 문학은 새롭게 주목되기 시작하였으며, 한국전쟁을 다룬 첫 전작 장편 『임진강의 민들레』(1962)를 전후 국가 만들기의 문제를 중심으로 독해하는 논의들⁴⁾이 제출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또 다른 전작 장편 『오늘과 내일』(1967)을 남성 지식인-대학생 중심의 주류적 서사와 구분되는 대안적 4·19서사로⁵⁾, 체제내화 되어 가는 4·19인식을 비판적으로 해체하는 서사로 독해하는 논의들이 제출되고 있다.⁶⁾

그러나 60년대 장편이 당대 지배담론과의 일정한 거리 속에서 구축해 낸 미학적 정치성을 중심으로 독해되고 있는 것과 달리, 50년대 중반 이후 발표된 한국 전쟁을 서사화한 일련의 단편 「포말」(현대문학, 1955.3),

위 논문, 2013, 5-6면.)

- 3) 김복순, 「1950년대 여성소설의 전쟁인식과 '기억의 정치학' - '강신재의 초기단편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1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3.; 김은하, 「유미주의자의 글쓰기와 여성 하위 주체들의 욕망」, 『여성문학연구』 2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9; 김은하, 「1950년대와 나쁜 여성의 젠더 정치학」, 『여성문학연구』 50, 한국여성문학학회, 2020. ; 차미령, 「적(敵)과의 동거 -1950년대 강신재 소설의 전쟁 부역자 문제에 주목하여」, 『우리말글』 87, 우리말글학회, 2020.
- 4) 라강 정신분석학의 '비(非)-전체' 개념을 통해 60년대 여성 문학을 민족국가의 결렬을 드러내는 징후로서 독해하고자 하는 시도 속에서 이 소설을 반공서사로 환원되지 않는 '비(非)-전체'에 대한 증언으로 독해하는 강지윤의 논의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강지윤, 「'비-전체'를 사유하기:한국 교양소설의 젠더-1960년대 한국전쟁 서사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28, 구보학회, 2021. 663면) 강신재의 60년대 장편 소설을 젠더 수행성의 차원에서 독해하고자 하는 시도 속에서 『임진강의 민들레』를 '네이션'을 넘어서는 여성 주체의 실천으로 독해하고 있는 강지희의 연구 역시 맥락을 함께 한다고 할 수 있다. (강지희, 「1960년대 여성 장편소설의 수행성연구-강신재와 박경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9, 30면.)
- 5) 김주리, 「4.19의 서발턴과 강신재의 오늘과 내일」, 『현대문학이론연구』 87, 현대문학이론학회, 2021.
- 6) 박보름, 「'4.19'와 '4.19'가 아닌 것 - 강신재 『오늘과 내일』론」, 『한국현대문학연구』 74, 한국현대문학학회, 2024.

「향연의 기록」(여원, 1955.10), 「제단」(전망, 1955.11), 「표선생수난기」(여원, 1957.3)의 경우 당대 지배담론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모호한 지점들이 지적되어왔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이 소설들에서 여성 인물의 부역 행위는 성적 방종과 연동되어 있으며 그로 인해 모종의 과국이 초래되기 때문에, 이 소설들은 초기에는 전후 남한의 공식 역사와 소설 사이의 상동성⁷⁾을 보여주는 사례로 독해되었다. 이후 가부장제 위반과 지배담론에 대한 반역 사이의 관련성에 주목한 논의⁸⁾가 제출되었으나 양자 사이의 명확한 관계는 해명되지 못한 채 이 소설들의 지배담론에 대한 태도는 유보적으로 독해되어왔다. 공산주의자와 관계 맺는 방중한 여성 인물의 형상은 그 자체로 반공주의적 요소로 독해될 여지가 있지만, 이 인물들에 대한 명확한 가치 판단이 제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소설들을 반공주의 담론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역시 석연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 소설들에서 스스로 공산주의자가 되거나 공산주의자와 관계 맺는 인물들의 형상은 “미숙하고 작위적인 설정”⁹⁾이자 하나의 해석적 과제로 지적되어왔다.

이 글은 이러한 선행 연구에서 제출된 해석적 질문에 주목하되 여성 인물의 형상 자체가 아닌 형상화 되는 방식, 구체적으로 서술(자)의 신뢰성에 주목하여 이 소설들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필자는 장편 『오늘과 내일』에서의 4.19 재현을 분석하며 체제 내화된 공식 서사로 포착되지 않는 사건들이 초점자의 시선의 제한이라는 내러티브 장치를 통해 서사화되고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¹⁰⁾ 이렇듯 강신재 문학에서 역사의 서사화는 내러티브 장치와의 밀접한 관련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할 경우, 선행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어온 네 편의 단편이 공통적으로 이야

7) 김복순, 앞의 글, 62면.

8) 차미령, 앞의 글, 425면.

9) 김은하(2009), 앞의 글, 211면.

10) 박보름, 앞의 글.

기 세계 내부의 인물에 의해 서술되는 동종제시 소설이라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2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앞서 언급한 네 편의 단편들 보다 앞서 발표된 「산기슭」(신천지, 1954.3)의 경우 네 편의 단편과 마찬가지로 공산주의자 남성과 성애 관계를 형성하는 여성 인물이 등장하지만, 이 여성 인물의 경우 다른 인물의 과국을 초래하지 않으며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윤리적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인물 형상의 차이는 이 소설이 네 편의 소설과 달리 이종 제시 서술로 제시되어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을 지닌다. 따라서 강신재의 50년대 단편 연구에서 지배담론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문제작으로 지적되어온 이 소설들은 동종 제시 서술이라는 내러티브 장치에 대한 고려 속에서 독해될 필요가 있다.

주지하듯 동종 제시 서술에 대한 서사학적 논의에서 서술의 신뢰성 문제는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야기 세계 내부의 인물이 제공하는 사실을 인물 해석의 수단으로 삼아야 할 경우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기에¹¹⁾, 통상적으로 이종제시 소설의 화자의 목소리 보다 동종제시 소설의 화자의 목소리가 신뢰성과 관련하여 독자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적¹²⁾이 제기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서사학적 논의를 고려할 때 위의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어온 인물 형상의 작위성이나 지배담론에 대한 모호한 태도는 동종 제시 소설의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이라는 내러티브 장치의 효과와 연관지어 새롭게 해석될 수 있다.

웨인 부스에 의해 내포작가의 규범과의 거리를 통해 규정된 신뢰할 수 있는reliable/신뢰할 없는unreliable 서술자 개념은¹³⁾ 리몬 케닌에 의해 화자의 나이와 지적 능력을 포함한 인식의 제한성, 주관적 입장, 가치 체계와 같은 비신뢰성의 기준¹⁴⁾이 제시 되면서 구체화되었다. 이후 신뢰성 여

11) 웨인 부스, 최상규 역, 『소설의 수사학』, 예림기획, 1999, 239면.

12) 수잔 랜서, 「보논이의 '나」, 제임스 펠란, 피터. 라비노비츠 엮음, 최라영 역, 『서술 이론 I』, 소명출판, 2015, 419면.

13) 웨인 부스, 앞의 책, 217-218면

14) 리몬 케닌,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85. 149-151면.

부의 판단 대상이 화자가 아닌 화자의 견해라는 채트먼의 주장¹⁵⁾ 이후 신뢰성의 판단 대상이 ‘화자’에서 ‘서술로 옮겨지게 되었다.¹⁶⁾ 그러나 내포작가 개념에 근거한 전통적 입장은 작가, 서술자, 인물의 시각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동시에 작가, 서술자, 인물의 객관적 진실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모더니즘 및 해체주의 이후의 문학 비평에서 회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을 텍스트 내재적 특질이 아닌 텍스트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독자의 해석적 전략으로 보는 인지주의적 관점이 제출되었고, 서술의 신뢰성 문제는 (내포)저자의 의도 또는 텍스트 내적 요소와 분리하여 논해지기 시작되었다. 그러나 서사적 행위 주체로서의 내포 저자 개념이 지니는 효용성에 대한 주장이 다시 제기되면서, 최근에는 서술의 신뢰성에 대한 판단이 (내포)저자, 텍스트적 현상, 독자 반응 사이의 순환적 관계로부터 생성된다는 수사학적 관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서술의 신뢰성을 결정짓는 독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사실’과 ‘가치’의 측면에서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을 규정한 웨인 부스의 전통적 입장을 수정할 것을 주장한 제임스 펠란과 메리 패트리샤 마틴의 논의¹⁷⁾가 대표적이다. 또한 이러한 수사학적 관점의 통합적 측면을 수용하되 인지주의적 차원을 보다 강조하여, 독자의 가치 기준과 서술자의 가치 기준 사이의 괴리에서 발견되는 거리, 텍스트 내적 특질, 독자로 하여금 서술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촉구하는 언어적 요소에 주목하여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을 재개념화¹⁸⁾

15) 시모어 채트먼, 한용환 옮김,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267면.

16) 박형서, 「서술의 신빙성 연구」, 『우리어문연구』 52, 우리어문학회, 2015, 70-71면.

17) Phelan, J. and Martin, M. P., "The Lessons of Weymouth": Homodiegesis, Unreliability, Ethics and The Remains of the Day", D. Herman(ed.), Narratologies: New Perspectives on Narrative Analysis,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99.

18) 안스가 닐링,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의 재개념화」, 제임스 펠란, 피터J. 라비노비츠 엮음, 최라영 역, 『서술 이론 I』, 소명출판, 2015, 177면.

하고자 하는 시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신뢰할 수 없는 서술에 대한 수사학적 관점과 인지주의적 관점을 참고하여 네 편의 동중제시 소설의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의 양상을 분석한다. 우선, 제임스 펠란과 메리 마틴이 구분한 동중제시 서술의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의 여섯 가지 유형을 통해 4편의 소설의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을 분석한다. 펠란과 마틴은 가즈오 이시구로의 소설 『남아있는 나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술자가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는 신뢰할 수 있지만 그 범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신뢰성 문제가 있음을 주장하며, 서술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사실’과 ‘가치’ 외에 ‘인식’의 축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¹⁹⁾ 또한 신뢰할 수 없는 서술에 대한 저자적 독자의 대응이 ‘거부하고 재구성’하는 것만이 아닌, ‘수용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잘못된(mis) 서술 외에 ‘불충분한(under) 서술이 포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²⁰⁾ 이러한 주장을 바탕으로 이들은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을 잘못된 보고(Misreporting)와 불충분한 보고(Underreporting), 잘못된 해석(Misreading)과 불충분한 해석(Underreading), 잘못된 평가(Misregarding)와 불충분한 평가(Underregarding)의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잘못된 보고’란 서술자의 서술이 실제 사실/사건과 다른 경우이며, ‘불충분한 보고’란 서술자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덜 말하는 경우를 뜻한다. ‘잘못된 해석’은 서술자의 잘못된 지식이나 인식으로 인한 서술의 오류를 뜻하는데, 『남아있는 나날』의 서술자가 “어떤 객관적인 관찰자라도 영국 풍경이 세계에서 가장 만족스럽다고 여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눈에 띄지 않는 것’(unobtrusiveness)이 최고의 미덕이라는 자신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초래되는 ‘잘못된 해석’의 사례이다. ‘불충분한 해석’은 서술자의 이해력이나 지각력의 부족으로 불완전한 해석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잘못된 평가’는 도덕적으로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인물을 거짓으로 옹호하는 경우와 같이 가치/판단의

19) Phelan, J. and Martin, M, P, 앞의 글, 92-93면.

20) 위의 글, 94면.

측에서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뜻하며, ‘부족한 평가’는 평가나 판단의 방향은 타당하지만 정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²¹⁾ 이 글에서는 이 여섯 가지 유형 중 ‘잘못된 보고’, ‘불충분한 보고’, ‘잘못된 평가’, ‘잘못된 해석’ 네 가지 유형을 통해 강신재 50년대 단편의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을 분석한다.

동종 제시 소설의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을 다루기에 앞서 먼저 2장에서는 공산주의자와 관계 맺는 여성 인물의 원형에 해당하는 여성 인물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종 제시 소설 「산기슭」(신천지, 1954.3)을 분석한다. 동일한 유형의 인물이 이종 제시 서술을 통해 형상화되는 방식과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동종 제시 서술의 효과를 비교하는 준거를 마련하고, 강신재 50년대 문학과 당대 지배담론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해석적 가설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포말」, 「표선생수난기」에서 발견되는 사실 보고의 차원에서 드러나는 비신뢰성의 표지를 중심으로, 이 소설들에서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이 어떠한 문학적 효과를 산출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4장에서는 「향연의 기록」, 「제단」의 문체적 특징에 주목하여 이 소설들에서 어떻게 서술자의 고도의 감정적 개입이 드러나며, 평가와 해석의 차원에서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이 어떠한 효과를 발생시키는지 살펴본다.

2. ‘위장 공산주의자’라는 규정과 ‘국외자’라는 고백 - 「산기슭」

「산기슭」은 인공 치하 서울에서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부역자가 된 한 여성이 서울 수복 이후 인민군 장교와 함께 월북하던 중 스스로 폭격에 몸을 던져 죽음을 택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이 이야기 세계 밖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제시되는 이종 제시 소설이다. 이 소설의 주인공 레인은 강신재의 50년대 단편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공산주의자 남성과 사랑에

21) 위의 글, 93-96면.

빠지는 여성, 월북하는 여성의 원형에 해당하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인물의 형상은 이후 발표된 소설들의 독해에서 중요하게 참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서술 수준의 차이로 인해 빚어지는 인물 형상 및 결말의 차이는 강신재 50년대 단편에서 신뢰할 수 있는/없는 서술이 산출하는 문학적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를 제공해 준다.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네 편의 동종 제시의 소설 속 인물들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거나 모호하게 처리되어 있는 것과 달리 레인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위장 공산주의자’로 그려진다. 적치하의 특수한 현실에서 외화된 행위를 통해서 입증될 수 없는 레인의 내적 진실은 (내포)작가의 목소리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이중 제시 서술의 권위에 의해 담보된다.

사변 발생 직후로 집의 사랑채를 그들에게 접수 당한 이래로, 레인은 아버지와 남동생을 은닉하기 위하여 철두철미 그 군관을 숙여온 것이었다. (...중략...) (서울에서 그들이 물러 갈때까지만-) 부르조아의 딸인 레인의 지금은 열렬한 「동무」로 변한 것을 그 군관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중략...) 행방불명이 되었다는 아버지, 포탄의 도가니 속에 남겨 놓아야 할 어머니, 그런 일들이 레인에게 월북을 주저케하는 단 하나의 이유인 줄로만 알고 있는 것이다. (木乃耳잡이가 木乃耳된다터나-) 레인은 쓴 웃음이 떠오를 번 하였으나 그대로 빙글 돌아서 걷기 시작하였다.²²⁾ (이하 강조는 인용자)

명시적으로 설명되는 부역의 동기, ‘군관을 숙여온 것’이라는 확정적 진술을 통해 진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레인의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은 하나의 사실로서 제시된다. 그러나 ‘()’표지를 통해 제시되는 인물의 자조적

22) 강신재, 「산기슭」, 『신천지』, 1954, 267면.

목소리는 관용구의 형태로 제시되고 있어 별도의 해석을 요한다. ‘木乃耳’는 ‘木乃伊’의 오기(誤記)로 미라를 뜻하는 한자어이다. 의도치 않게 스스로 공격하려고 했던 대상의 처지에 놓이는 상황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관용표현은 ‘ミイラ取りがミイラになる’(미라 도굴꾼이 미라 된다)는 일본 속담의 변안 속담으로 추정되며, 60년대 초반 신문 기사에서도 ‘머라(木乃伊)잡이가 머라가 된다’와 같은 용례가 확인된다.²³⁾ 이 관용표현은 자신은 애초에 미라가 아닌 미라 잡이, 즉 공산주의자가 아닌 공산주의자를 속이려고 한 사람이었으나, 마침내 진짜 공산주의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듯 소설 전반부에서는 별도의 표지를 통해, 잠재적인 불안을 표출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었던 인물의 목소리는 월북 여정이 제시되는 중반부부터 별도의 표지 없이 서술 속으로 틈입해 들어오며, 반공주의로 환원될 수 없는 균열의 지점들을 함축하게 된다.

인민군 군관과 함께 북한을 향해 가고 있는 여정에서 레인은 패퇴하는 인민군 병사들을 마주치게 되며, 이러한 만남은 레인으로 하여금 자기 역시 그들 중 일부임을 자각하게 한다.

레인은 가없다고 생각 하였다. 앞에 가는 그 병졸의 뒷모양은 주검의 입김이 설레인 듯 불길해 보였다. 옆에 있는 그 군관의 몸에서도 불길한 전율이 통하여 왔다. 그들은 모두 너무 처참해 보였다. (a)도대체 누가 이러한 비극을 자아 냈을까.

레인은 다만 자기 자신은 국외자라고 느낀다. 그들과 함께 죽을지 모른다고는 백번 생각 하지만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밀어 붙이는 듯한 기묘한 무책임감과 비슷한 마음의 여유가 있다. 다만 죽지 않고 「붉은 나라」에 도착 한다면 거기서부터는 전혀 실감을 가져 볼 수 없는 「반실(半失)된 무서운 현실」이었다. 그런 생각을

23) 「政治活動適格與否(정치활동동격여부) 審査基準(심사기준)을 보고」, 『조선일보』, 1962.05.27.

하며 달음질 치듯 산기슭을 내려 간다.²⁴⁾

위의 인용문은 공산주의자가 아님에도 목숨을 걸고 북한을 향하고 있는 이윤배반적인 상황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레인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전율이 통하여왔다’, ‘느낀다’, ‘마음의 여유가 있다’ ‘실감을 가져볼 수 없다’와 같은 서술어는 의미상 1인칭을 통하여만 실현될 수 있기에, 이 문장들은 문법적으로는 3인칭이지만 레인 자신의 목소리이기에 자유간접문체에 해당된다. 이와 더불어 (a)에서 확인할 수 있듯 내적독백을 통한 인물 자신의 목소리가 별도 표지 없이 서술자의 목소리처럼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자유간접문체와 내적독백에 의해 서술자의 목소리로 틈입해 들어오는 인물의 목소리는 이야기 밖 서술의 통제권을 일정정도 점유²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인물의 내적 갈등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서술의 통제권이 인물의 목소리에 주어져 있다는 것은 이 소설이 보여주고자 하는 레인에 관한 진실이 그녀를 ‘위장 공산주의자’로 규정해온 이야기 밖 서술자의 목소리만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레인의 자기 인식은 ‘국외자’라는 표현을 통해 함축적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국외자’라는 정체성은 앞서 이야기 밖 서술자에 의해 명시적으로 선언되어온 남한 사회의 일원이라는 정체성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물론 1차적으로 ‘국외자’라는 정체성은 공산주의자가 아님에도 인민군의 ‘열렬한 동무’로 ‘붉은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아군으로부터 아군임을 인정받을 수 없는, 정체성에 대한 진실이 외화될 수 없다는 아이러니는 레인의 ‘국외자’ 인식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이 ‘국외자’ 인식은 자신의 정체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무기력과 소외의 표현만이 아닌, 진실이 보존되는 특수

24) 강신재, 앞의 글, 268면.

25) H.포터 애벗, 우찬제 외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154-155면.

한 방식에 대한 진술이기도 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죄’에 대한 레인의 태도에서 구체화된다. 레인은 국군에게 붙잡혀 처벌을 받는다고 해도,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진실은 사라지지 않기 위해 ‘죄’가 없다는 확신과 ‘마음의 여유’를 느끼고 있다. 이러한 레인이 두려워하는 것, 유일하게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살아서 ‘붉은 나라에 도착’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군의 손에 죽음을 당하더라도 손상되지 않는 진실이, 적군의 나라에 도착하는 순간 위협받게 되는 것은 왜일까.

위장-공산주의자로 행세하는 동안 레인은 외적 행위와 내적 진실 사이의 긴장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열렬한 동무’로 ‘붉은 나라’에 도착하는 순간 공산주의자-되기는 완성되어버리기에, 레인은 진실을 가장하기 위한 어떤 행위도 할 필요가 없다. 외부의 강요와 내적 진실 사이의 긴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긴장을 통한 정체성의 보존도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월북이라는 실천의 압도적 성격으로 인해 공산주의자가 아니라는 진실은 무화되어 버리기에, 외적 행위와 내적 진실 사이에 어떠한 긴장도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레인이 느끼고 있는 ‘반실(半失)된 무서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의 정체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죽음은 월북이라는 실천의 압도적 성격을 무화시키며 자신의 내적 진실을 보존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요구받는 정체성을 위반할 때에만, 특정한 체제 내에서 ‘국외자’로 존재할 때에만 진실이 보존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외자’는 역설적으로 진실을 보증하는 하나의 존재 방식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국외자’리는 존재 방식은 이데올로기적 지향, 체제 선택의 문제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일정한 정치적 효과를 산출하게 된다.

이 소설의 결말에서 레인의 죽음을 통해 항변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는 명제의 강조점은 ‘공산주의’가 아닌 ‘아니다’에 찍혀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체성에 대한 주장이 ‘아니다’의 문형으로만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정체성의 진실이 외부로부터 강요되는 정체성에 대한 거부와 저항 속에

서 산출되는 것, 즉 국외자-되기를 통해 보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위장 공산주의자’의 ‘국외자-되기’ 과정을 통해 소속과 정체성을 가르는 구분들의 허위를 폭로하고, 이데올로기적 정체성을 절대시하는 체제 적대의 문화를 의문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반공주의란 고정된 정체성을 상징하고 적을 규정해냄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구성하는 담론이라는 점에서 정체성 규정의 역설을 항변하는 이 소설은 반공주의-지배담론에 대한 문학적 대응으로 읽힐 수 있다. 그리고 이야기 밖 서술자의 목소리와 인물의 목소리를 경합시키고, 다시 그 목소리들을 인물의 행위를 통해 재규정하는 이 소설의 내러티브 장치는 체제 적대의 현실에서 정체성에 대한 진실이 보존될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을 문학적으로 구현해내기 위한 미학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강신재의 50년대 단편에서 서술자/인물의 목소리는 문면의 의미 외에 소설 내에서의 배치를 통해 산출되는 효과와 함께 이해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3. 잘못된/불충분한 보고와 여성 부역자 표상의 재구성 - 「표선생 수난기」, 「포말」

「표선생 수난기」는 현재 야간 대학 학생이 된 서술자 영애가 과거 자신이 식모로 일했던 표선생대 사람들의 전쟁 전후의 행적을 들려주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소설이다. 이 소설의 첫 대목은 서술자 스스로 자신의 서술자로서의 자격을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요즘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표선생님 댁에서 잠을 잔 것은 고작해야 한달이나 그쯤 밖에 안되는 일이었는데도, 그것이 몹시 길었던 듯이 느껴지는 까닭은, 아마도 그 동안의 기억이 내 생전에는 몹시나 신기하고 심각했던 탓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아무튼, 국민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올라 와서 표선생님 댁에 살러 가기까지 열너댓해 동안이나 자라 온 시골집 풍경 보다, 이렇게 눈을 감으면 낙원동 큰 길가의 그 양옥집이 더 선-선하게 떠오르니 우스운 일입니다.

그리고 실상은 번번히 이야기를 해본 적도 없는 그집 식구들과 몹시 친숙하게 지낸 것 같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착각이라고나 할 밖에 없겠습니다. (...중략...) 나는 아마 이 일을 완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옛날의 식모 아이는 지금은 훌륭한 야간대학생이니 말입니다²⁶⁾

이렇듯 이 소설의 서두에는 서술자가 지닌 객관적 한계와 그림에도 불구하고 서술자로서의 자신의 자격을 확신하는 서술자의 목소리 사이의 충돌이 드러나 있다. 서술(자)의 신뢰성에 대한 전통적 논의에서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주된 요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제한적 지식이며, 이 제한된 지식의 가장 명백한 요건이 서술자의 나이²⁷⁾라는 점에서 관찰 당시의 열다섯 소녀라는 서술자의 나이는 서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는 요소이다. 또한 국민학교만 졸업한 식모, 즉 교육 받지 못한 존재라는 요소 역시 인식의 제한을 결정짓는 요소 중 하나이다. 서술자는 현재 ‘훌륭한 야간대학생’이 되었지만, 관찰 당시의 서술자의 인식이나 해석이 서술 시점의 인식 능력을 통해 수정되거나 재해석 되지 않은 채, 관찰 시점의 혼란 그대로 전달된다는 점에서 비신뢰성의 표지들은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서술자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인물이나 사건이 제한적으로 서술됨으로써 서술(자)의 비신뢰성은 더욱 강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이 소설은 아들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는 표선생 부인의 파격적인 성적 욕망과 그것을 용인하는 표선생 사이의 기이한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 되어 왔으나, 이러한 비신뢰성의 표지에 주목할 경우 문제적 인물 형상은 신뢰

26) 강신재, 「표선생수난기」, 『여정』, 중앙문화사, 1957, 112-113면.

27) 리론 케넌, 앞의 책, 149면.

할 수 없는 서술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소설은 새롭게 독해될 필요가 있다.

우선 이 소설에서 인물들에 대한 정보는 열다섯 소녀의 제한적인 지식과 경험, 관심사를 바탕으로 제시된다. 월남민이자 대학 교수인 표선생의 경우 월남 지식인으로서의 면모, 월남의 동기나 사상적 이력은 교육 받지 못한 어린 소녀의 지식적 한계에 의해 전혀 설명되지 못한다. 반면 둘째 아들 중학생 완규의 경우 사춘기 소녀의 시선 속에서 성적 동경의 대상으로 신비화되어 형상화된다. 이러한 인물 형상화 양상 중에서도 서술(자)의 신뢰성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대두되는 지점은 이 소설의 가장 문체적 사건인 표선생 부인과 춘식의 만남에 대한 서술이다.

아래 인용문은 표선생 부인과 춘식 두 사람의 밀회 장면에 대한 서술로 이 밀회에 동참하고 있는 큰 아들 완수의 존재로 인해 이들의 관계는 일탈적 성애 관계를 초과하는 불가해하고 기이한 것으로 제시된다. 서술자는 혼란 속에서 이들의 만남을 보고한다.

그 때 뒷걸 모퉁이에 무슨 하얀 것이 너울너울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뒷걸 그 모퉁이는 집안에서 제일 시원한 장소이고 흔들의자가 두 개 내놓어져 있었습니다. 베란다의 이 특수한 각도로부터가 아니며는 눈에 띄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너울거리고 있는 것은 춘식이란 학생의 흰 즈봉을 입은 아랫도리라고 알았습니다. **(A)그는 비스듬히 걸터 앉아 전후로 천천히 의자를 흔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심히 눈을 떴려고 하는데 또 하나의 하얀 하체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흰 조젯트 치마를 입은 아주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빈 걸상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러나 곧 다시 일어나더니 춘식이의 흰 즈봉의 다리 위에 치마를 포개어 놓 것이었습니다. **(B)흔들의자는 두 사람의 체중을 얹은채 천천히 앞뒤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머리 위로 피가 몰려 올라 왔습니다. 아래층에 내려와서 간신히 침착한채 하고 있는 나에게 식모 할머니는 한번 더 빨래대야를 안겨 주었습니다. 빨래를 넣고

나자 나는 뒷걸 모퉁이로 시선을 보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검은 즈봉이 하나 더 참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큰 학생이었습니다. 큰 학생은 먼저 아주머니가 잠깐 앉았던 의자에 길게 누워 있었습니다. (C)아주머니는 몸을 일으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춘식이의 의자 위고, 그 치마는 여전히 흰 즈봉 위에 포개어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내 머리는 그냥 혼란해져 버렸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 편에 쪽에서는 웃음소리가 일어나고 아주머니는 그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웃으면서 무어라고 말을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²⁸⁾

그런데 이 장면에서 서술자의 관찰이 매우 제한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뒷걸 모퉁이는 서술자가 위치한 베란다의 ‘특수한 각도’에서만 보이는 공간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두 공간 사이에는 웃음소리만 들릴 뿐 대화의 내용은 들리지 않을 정도의 거리가 존재한다. 또한 흔들의자의 특성상 인물들의 형상은 고정된 전체가 아닌 움직이는 일부, 흔들의자에 얹힌 하체만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관찰의 구도에서 하나의 흔들의자에 실린 두 사람의 체중은 서술자에게는 결코 실감될 수 없는 것이기에 ‘흔들의자는 두 사람의 체중을 얹은 채 천천히 앞뒤로 흔들리고’ 있었다는 서술은 사실에 대한 부정확한 보고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문체적 인물인 표선생 부인의 형상과 관련한 가장 결정적인 정보가 이렇게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방식으로 제시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이러한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관찰 방식은 서술자의 관찰과 보고에 오류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의자는 두 개인데²⁹⁾

28) 강신재, 앞의 글, 125-126면.

29) 필자는 이 대목에서 ‘결상’으로 호명되고 있는 의자가 두 개의 흔들의자 이외의 제3의 의자를 뜻하는 것으로, 아주머니와 춘식이 각각 하나의 흔들의자에 앉아 있고 완수가 별도의 결상에 앉아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결상’이 나머지 하나의 흔들의자를 뜻하는 것일 수

세 사람이 앉아 있으니 두 사람은 겹쳐 앉아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거리, 흔들의자, 하의 색깔과 같은 시각적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조건들로 인해 아주머니가 춘식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는 서술자의 보고는 의심스러운 것이 된다. 아주머니는 처음 자신이 걸터앉아 있던 의자에 자세를 고쳐 도로 앉은 것이지만 두 사람이 같은 흰색 하의를 입고 있었기에, 그리고 두 흔들의자가 같은 박자로 흔들리고 있었기에 아주머니가 마치 춘식의 의자에 포개어 앉은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완수가 나타난 뒤 아주머니는 춘식이 아닌 완수의 무릎 위에 앉아있었지만 두 흔들의자가 겹쳐서 흔들리고 있었다면 춘식의 무릎위에 앉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 위 인용문의 흔들의자(A)는 춘식 혼자 앉아있는 흔들의자, 흔들의자(B)는 춘식과 아주머니가 각각 앉아 있는 두 개의 흔들의자의 겹쳐있는 상, 흔들의자(C)는 완수와 완수의 무릎위에 앉아 있는 아주머니와 춘식의 모습이 겹쳐진 상일 수 있는 것이다. 이 장면은 서술자의 제한된 관찰과 그로 인한 잘못된 보고일 수 있으며, 이 서술은 사실 차원에서의 비신뢰성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다.³⁰⁾

있다는 익명의 심사위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일부 해석을 수정하였다. '걸상'이 의자 종류를 폭넓게 지칭하는 단어이며, 제3의 의자가 별도로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걸상'이 나머지 하나의 흔들의자를 지시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개의 흔들의자만이 있었다 하더라도 오인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에, 이 장면에 대한 서술이 잘못된 보고일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해석적 입장은 유지하였다. 분석의 정확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를 전한다.

- 30) 차미령은 이 소설의 서술자의 역할을 “아주머니의 혼의 관계를 사실로 확정”해주는 외부자의 시선으로 분석 한 바 있으며, (차미령, 앞의 글, 423면) 심진경 역시 야간 대학생이 된 화자의 지위에 주목(62면)한 바 있다. 이렇듯 연구자들에게 이 소설의 서술(자)의 신뢰성은 의문시 되지 않아왔는데, 이 사실 자체도 하나의 분석 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 웨인 부스는 소설에서 아이러니가 실패하는 이유 중 하나로 “아이러니가 깔려 있다는 적절한 통고의 부재”를 제시 하며, 이것을 디포우의 소설 『국교 반대론자 최속 치치 방법The Shortest Way the Dissenters』의 사례를 통해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이 소설에서 가짜 토리당원이 주장하는 이교도 숙청의 무시무시한 주장이 당대 독자들에게 아이러니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를 1)비국교들의 경우 이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닌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겹나는 것’이었으며, 2)토리당원들에게는 일정 정도 ‘신나는 것’이었으며 3) 서술자의 호소가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으며,

이 장면이 서술자의 잘못된 보고일 수 있는 가능성은 이 만남이 제시되는 맥락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 이들의 만남은 ‘어느 일요일 날’ 조반상에서의 춘식 부친에 대한 대화 이후에 제시되고 있는데, 월남 이전 이들 부부와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암시되는 부친의 존재로 인해 춘식이라는 인물에 대한 해석의 방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춘식이 자네 아버지께 이런 얘기 들은적 있나?」

하고 흥이 겨운 듯이,

「우리가 똑 자네들 낫(나이)세나 됐됐잖디. 그때 대동강 너머 목당(牧場)이 새루 생겼대기 아 하루는 아버지랑 나랑 이 완규 오마니랑……놀러 가질 안았잖나……」

하면서 호인답게 먼저 빙그레 웃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까부터 기분이 좋지 못하던 아주머니는 껍하고 쏘아 붙이듯이.

「아, 그, 뭘 흥설수설 합네까. 케케 목은 그른 소릴 누가 들갔덴다구. 에에 쫓. 쫓.」

하며 짜증을 냈습니다.

표선생의 얼굴은 실그러 졌습니다. 감정의 움직임을 반영하여 그 표정이 여러번 또 달라졌습니다.³¹⁾

우선 이북 사투리로 오가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던 월남민으로서의 이들의 정체성이 표면화된다. 또한 앞서 서술

4) 이 소설 안에 디포우의 진짜 입장을 알아낼 진술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웨인 부스, 앞의 책, 424-426면) 이러한 논의를 참고해 볼 때 이 소설에서 아들 앞에서 아들의 친구와 불륜을 저지르는 기이한 인물의 형상이 아이러니로 인식되지 않은 것은 타락한 공산주의자 여성의 형상이 있을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연구자들의 경우 여성-지식인으로 설정되어 있는 서술자의 목소리를 작가의 목소리와 구분하지 않고, 이러한 인물 설정을 가부장적 지배체제로부터의 일탈의 징후로 독해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서술의 신뢰성 문제와 연결시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31) 표선생수난기, 『여정』, 124면.

자를 통해 원수의 동무로만 소개되었던 춘식이 사실은 부부의 젊은 시절 지인의 아들이며, 춘식은 현재 부친과 떨어져 이들 부부에게 위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이 셋의 관계의 진실이 무엇이었는지는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지만, 아주머니의 신경질적인 반응과 표선생의 표정변화 등을 통해 이 세 사람 사이에 모종의 전사(前事)가 있었음이 암시되고, 춘식에게는 월남 이전의 전사(前史)가 부여되게 된다. 이로 인해 춘식의 형상은 일탈적 성애 대상으로서의 젊은 육체로 설명되지 않는 지점을 담지하게 된다. 정리하면, 이 소설의 내러티브 장치는 아주머니와 춘식의 관계를 일탈적 성애 관계로 묘사하는 서술이 잘못된 보고일 수 있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월남 이전부터 이어진,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놓여있을 수 있음이 암시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러티브 장치는 소설 속에서 일정한 정치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우선, 이 소설이 전쟁으로 인한 파국이 일단락된 이후 전쟁 당시에 대한 회고의 형식으로 서술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술자는 아주머니와 춘식이 함께 월북했다는 사실을 제3자를 통해 전해들은 이후 두 사람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여 이들에 대해 회고하고 있다. 서술자는 순차적 흐름 속에서 두 사람의 윤리적 타락이 월북으로 귀결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월북한 두 사람의 부역자를 사후적으로 윤리적으로도 타락한 인물들로 재구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춘식과 아주머니를 월남 이전의 시간에 연결시키고,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보고를 의심스럽게 형상화하는 이 소설의 내러티브 장치는 이러한 재구성을 의문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즉, 이 소설의 내러티브 장치는 전후의 적대적 심상 속에서 괴물-부역자로 표상되는 인물들을, 분단에서 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흐름 속의 월남민-월북자로 복원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타락한 부역자에 의해 파국이 초래되는 반공주의 서사가 아닌 분단과 전쟁을 통과한 가족의 파국을 여성 구성원의 타락을 중심으로 재구성하는 인과론 책임론의 논리를 문제시

하고 있는 소설로 읽혀야 한다.

이와 같이 작중 인물의 부역 행위에 관한 서술자의 보고를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제시함으로써 전후 인과론과 책임론을 의문시 하는 서사 전략은 또 다른 단편 「포말」에서도 확인된다. 「포말」은 작중 인물 유운삼의 시점으로 6.25부터 9.28 수복 직후의 시간 동안의 아내 연옥의 부정과 부부의 체제 협력 문제를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친구 김의 부탁으로 원래 김의 애인이었던 연옥과 결혼한 유운삼은 아내 연옥이 결혼 5~6개월 만에 아이를 출산했음에도 두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따지지 못할 만큼 어리숙한 인물이다. 손유경이 지젝의 논의를 참고하여 지적한 바 있듯 이 소설의 서술자 유운삼은 ‘알고자 하지 않는 주체의 한 전형’³²⁾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서술자-인물의 성격은 이 소설을 서술(자)의 신뢰성의 문제 속에서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이 소설에서 서술(자)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은 다른 인물들이 아닌 서술자 자신과 관련된 서술에서, 구체적으로 ‘손해룡’이라는 의문의 인물에 대한 모순적인 서술로부터 비롯된다. 손해룡은 유운삼이 수복 이후 형사들의 심문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인물로, 연옥과 유운삼은 이 인물과 관련된 모종의 진실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암시되지만 서사 속에서 그 진실은 표면화되지 않는다.

(A) “그게 글썄 와가지구 당신 일을 꼬치꼬치 캐묻는 것 아니겠우. 六. 二五 때 어디 살았냐는 등 무얼 했냐는 등 손해룡이란 사람을 어느냐는 등 별소리를 다 들추어내면서……”

“그 그래…….”

손해룡이란 이름을 듣자 나는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나는 별로 그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니었는데두…….³³⁾

32) 손유경, 「유년의 그로테스크: 1950~60년대 강신재 단편소설의 한 원천」, 『국제한인문학연구』 39, 국제한인문학회, 2024. 182면.

(B) 형사는 나의 六.二五 당시의 소행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질문을 퍼부었다. 손해룡이란 사람을 아느냐고도 물었고 동위원회에서 무슨일을 맡아 보았느냐고도 하였다. (...중략...) 손해룡이란 자가 어째서 특별한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는 우리 반에서 살았다니까 나는 그 집에도 필시 무슨 일을 재촉하러 다녔을 것이다.³⁴⁾

인용문(A)는 연옥의 심부름으로 일수꾼 노릇을 하고 돌아온 유운삼이 연옥으로부터 형사들이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전달받는 대목이며, 인용문(B)는 유운삼이 형사들로부터 인공치하에서의 부역 행위에 대해 심문 당하는 대목이다. (A)에서 서술자는 손해룡이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죄’를 떠올리며 자기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B)에서는 손해룡에 대해 잘 모르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표선생 수난기』의 경우 자신이 관찰한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서술자의 보고가 사실과 다를지도 모른다는 ‘잘못된 보고’의 가능성으로부터 서술(자)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다면, 이 소설의 경우 서술자의 의도적인 불충분한 보고로 인해 신뢰성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이러한 불충분한 보고로 인한 정보의 공백은 서사 바깥에 말해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으며 ‘죄가 없다’는 고백 이면에, 서술자 자신의 ‘죄’와 관련된 드러나지 않은 진실이 있음을 지시하게 된다. 무엇보다 불충분한 보고로 인한 서술의 비신뢰성은 연옥을 타락한 부역자로 형상화하고 자신의 부역을 연옥의 지시에 따른 수동적인 행위로 형상화하고 있는 이 소설의 서술과 유운삼의 전쟁 중 행적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나아가 연옥의 정치적 부역과 성적 부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유운삼의 서술이 사실 손해룡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자신의 비밀을 감추기 위한 위장이나 왜곡일지도 모른다는 의심까지도 초래하게 된다.

33) 강신재, 「포말」, 『현대문학』, 1955, 15면.

34) 강신재, 위의 글, 20-21면.

이렇듯 「표선생 수난기」와 「포말」에서는 사실/사건 차원에서 발생하는 서술의 신뢰성 문제로 인해 여성 인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적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소설들의 내러티브 장치를 통해 문제시되는 것은 전쟁 중의 부역 행위가 성별화됨으로써 반공주의와 가부장제가 상호 강화되는 양상이다. 이 소설들은 부역자-타락한 여성을 재현하는 서술(자)을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듦으로써, 체제 적대를 통해 작동하는 전후 남한 사회의 지배담론과 여성에 대한 타자화를 통해 작동하는 가부장제의 공모 관계를 폭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소설들은 지배담론에 협력하는 것이 아닌, 모순적 재현의 방식으로 지배담론과 길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믿을 수 없는 서술과 서술자의 진실 - 「제단」, 「향연의 기록」

앞서 살펴본 두 소설이 사실의 보고 차원에서 제기된 신뢰성 문제를 통해 미학적·정치적 효과를 발생시킨다면, 4장에서 살펴볼 두 소설 「제단」과 「향연의 기록」의 경우 평가와 해석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신뢰성 문제를 통해 문학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할 수 있다. 이 두 소설의 서술자는 공통적으로 교육받은 지적인 인물로 사실의 보고 차원에서 모순은 발견되지 않지만, 서술자 자신의 가치관에 의해 잘못된 평가와 해석의 문제가 제기된다.

「제단」은 태평양 전쟁에서부터 한국 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적 격변기를 배경으로 펼쳐졌던 명덕-순정-현식 세 사람의 삼각관계가 당사자 중 한명인 명덕의 회고를 통해 서술되는 소설이다. 여학교 시절 시작된 이 삼각관계는 순정이 징집을 피하기 위해 결혼을 서두르면서 결핵 환자인 현식을 버리고 H라는 남자와 결혼하고, 결국 명덕과 현식이 결혼하게 되면서 중단된다. 해방 후 현식과 순정은 각각 가정이 있는 상황에서 관계를 다시 이어나가게 되지만 이 재회는 결핵이 재발한 현식이 순정으로부

터 또 한 번 버려지는 것으로 종결된다. 한국 전쟁 발발 후 이루어진 두 번째 재회는 인공치하에서의 두 사람의 적극적인 부역 행위로 구체화되며 동반 월북 과정에서 현식 혼자 폭사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이 소설은 현식의 죽음으로 세 사람의 지난한 삼각관계가 종료된 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H의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삶을 선택한 순정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로 시작된다.

과렴치하다는 것은 하나의 미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그것은 용기로 통한다는 의미에서 그러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인 듯이 순정(純貞)이네 애들은 모두 다 혈색이 좋고 숙성하며 산뜻한 차림새를 하고 즐거운 듯이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자식들을 굶주리지 않고 헐벗기지 않고 안락한 잠자리를 줄 수 있다는 일이 얼마나 힘이 들고 피땀을 짜내는 부담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만이 내가 여기에 하는 미덕이란 말의 뜻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능력한 아버지의 눈물과 안타까움도 함께 알아줄 것입니다.³⁵⁾

이렇듯 이 소설은 순정이 누구인지 소개도 하기 전에 그녀가 아이들을 유복하게 키우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의 과렴치함으로 제시되면서 시작되어, 순정의 삶이 왜 하나의 ‘과렴치함’인지 과거의 행적을 통해 설명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친구, 애인, 남편을 반복해서 배신하는 순정의 행적은 가족 규범과 인간관계 윤리를 동시에 위반하는 것이기에, 순정에 대한 명덕의 평가는 보편적 가치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신뢰할 만한 평가이다. 그러나 평가 내용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서술의 어조는 서술자의 주장과 호소 속에 무언가 다른 의도가 포함되어 있을지 모른다는 의심을 발생시킨다. ‘-습니다, -합니다, -있습니다, -겠지요, -하였는지요’와 같은 경

35) 강신재, 「제단」, 김은하 엮음, 『강신재 소설 전집』, 현대문학, 2013, 132면.

어체 어미를 통해 실현되는 독자에게 무언가를 해명하고 호소하는 방식의 문체는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드러내기보다 조작적 의도를 실현하는데 적합하며, 수신자 지향적 표현의 과잉 사용은 서술자의 고도의 감정적 개입을 가리키기에 독자가 서술자를 신뢰할 수 없도록 간주하는 절차를 거치도록³⁶⁾ 만들기 때문이다.

청자를 향한 서술자의 직접적인 호소는 서술자 자신의 최종적 결정, 즉 아이들을 떠나 홀로 공부를 하러 떠나는 선택에 대한 동조를 구하는 대목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진眞도 선善도 미美도, 사람이 지표로 하고 살아가야 할 것은 과연 아무것도 없고, 하다못해 자기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도록 악을 피해 건지는 노력조차도 때로는 주체넘고 잔인한 것밖에는 안 되는 걸까요? 말하자면 지금 내가 자식들을 때놓고 공부를 하러 가는 그런 따위의 일은 말입니다.³⁷⁾

위의 인용문에서 ‘안 되는 걸까요?’와 같은 직접적인 물음의 형식으로 요청되는 것은, 아이들을 두고 떠나는 명덕의 선택이 결코 ‘주체넘고 잔인한 것’이 아니라는 독자들의 동의와 승인이다. 위의 인용문에서 명덕의 선택은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한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닌 가치 추구하고 관련된 것으로 제시된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가치인지는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으며 ‘진선미’, ‘악을 피해 건지는 노력’, 구체성 없는 ‘공부’라는 막연한 명목으로 설명된다. 즉, 명덕은 순정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회고하며, 순정의 파렴치함과 대비를 통해 자기 선택의 윤리적 명분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경제·사회적 활동에 나선 전쟁 미망인을 도덕적 규제의 대상으로 바라봤던 전후 남한 사회의 통제적 시

36) 안스가 뉘닝, 앞의 글, 197-198면,

37) 강신재, 위의 글, 134면.

선³⁸⁾과 모성에 대한 규범을 고려할 때 자식들의 곁을 떠나 공부를 하러 떠나는 명덕의 선택은 1950년대 후반 남한에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이 단락의 탄원적이고 호소적인 어조는 명덕 자신이 감행하고 있는 선택의 문제적 성격을 무마하고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조작적인 언어 표지들과 더불어 표면화되는 서술자의 문제적 가치관은 순정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온전히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다.

이 소설에서 서술자가 느끼는 좌절과 고통은 서술자 자신이 경험한 현실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점에서 그 자체로 신뢰성의 단서로 받아들여진다.³⁹⁾ 그러나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독자들에게 승인을 요청하고 있는 서술자의 선택은 당대 규범과 충돌하는 것이다. 동시에 서술자에 대한 신뢰를 철회하는 순간 순정의 위반을 용인하게 되기에 서술의 신뢰성은 손쉽게 철회되기 어렵다. 이렇듯 성규범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순정의 위반과, 모성의 차원에서 감행되는 명덕의 위반은 서로 대결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독자가 어느 쪽을 택하든 궁극적으로 비판되는 것은 가부장제라는 점에서 명덕과 순정의 위반은 상호 보완적이다. 이 대결은 결과적으로 서로가 아닌, 여성의 성적 욕망을 통제하며 모성을 사회 재건의 주요 동력으로 전유하는 전후 가부장제의 작동 원리를 겨냥하게 되기 때문이다. 서술자 자신의 문제적 가치관으로 인해 신뢰성이 제한되는 동시에, 비판되어 마땅한 문제적 인물의 형상으로 인해 서술의 비신뢰성 역시 제한되는 이중의 제약으로 특징지어지는 이 소설의 내러티브 장치를 통해 전후 가부장제에 대한 효과적인 비판이 수행되고 있는 것이다.

「제단」의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이 서술자의 문제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단’에 해당한다면, 「향연의 기록」의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은 서

38) 이임하, 「한국전쟁이 여성생활에 미친 영향- 1950년대 '전쟁 미망인'의 삶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8, 역사학연구소, 2003, 32면.

39) 웨인 부스, 앞의 책, 367-369면.

술자의 가치관 자체가 아닌 가치관의 개입으로 인한 해석의 오류, 즉 ‘잘 못된 해석’에 해당된다. 「향연의 기록」은 세 명의 남성 사이를 오가는 언니의 연애사의 전말을 동생의 시점에서 독자에게 전달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역사철학 재미날’을 수강하는 여대생이라는 사회적 신분과 지적 능력은 서술의 신뢰성을 형성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서술자가 보고하는 언니에 대한 사실은 모순적이거나 불충분하지 않고 서술자의 가치 평가 역시 특별한 오류의 지점이 드러나지 않는다. 언니는 일관되게 전쟁의 중압감에 구애받지 않으며 체제의 안과 밖을 횡단하며 여러 남성들과 성애 관계를 형성하는 능동적인 인물로 형상화된다.

이러한 언니의 섹슈얼리티적 능동성을 상징적으로 구체화하는 장치는 의복이다. 피난길의 ‘레인코트’, 인민군이 점수하고 있는 집에서의 ‘로즈빛의 꽃무늬가 있는 구레이신 원피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욕망에 충실한 언니의 형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치이다. 전쟁 중 이루어졌던 의복과 관련한 국가 차원의 통제를 고려할 때 이러한 의복에 대한 설정은 정치적 함의를 지니는 것으로 독해될 수 있다. 1951년 11월 18일 공포된 「전시생활개선법」 7조와 9조에 따라 「전시에 상응하지 아니하는 복장」, 구체적으로는 외국산 양단, 벨벳, 하부다에 등으로 된 의류, 스포링코트와 모피 등이 금지되었고⁴⁰⁾ 여성의 의복은 생활복 바지⁴¹⁾로 제한되었다. 이것은 일차적으로는 물자낭비를 막기 위한 전시 비상조치의 일환이었지만 남성 가부장의 통제에 공백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전시 상황에서 여성의 욕망을 제재함으로써 섹슈얼리티를 억압하고자 하는 국가 차원의 도구 중 하나였다.⁴²⁾ 이러한 맥락을 고려할 때 「전시에 상응하지 아니하

40) 강창부, 「6·25전쟁기 「전시생활개선법」과 후방의 ‘생활동원」, 『민족문화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 339-345면.

41) 「전시생활 의장(衣裝) 결정. 여름엔 “노타이”, 여자는 활동복」, 경향신문, 1952.2.27.

42) 북경연, 『한국전쟁기 잔류파 여성 문인의 전쟁 기억과 젠더 정치』,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71면.

는 복장을 고집하는 언니의 형상은 이러한 체제 차원의 통제를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언니가 약혼자인 김정수의 손에 살해되는 이 소설의 결말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이 소설의 결말은 그동안 성적으로 방종한 공산주의자 여성에 대한 서사적 처벌이자, 이 소설의 반공주의적 요소로 독해되어 왔다.⁴³⁾ 그러나 이러한 해석으로는 전시 지배담론의 섹슈얼리티 통제를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는 언니의 형상은 정확하게 설명되지 못한다. 전시 가부장제에 대한 위반과 저항으로 유평화 되는 언니의 형상은 처벌받아 마땅한 타락한 부역자의 표상을 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소설의 결말에 대한 다른 방식의 해석이 필요하다.

이 소설의 결말의 해석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소설이 성애 관계 자체에 대한 비판적/비관적 가치관을 가진 서술자의 의해 서술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언니의 연애사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소설에서 여학교 학생이라는 것을 제외한 서술자 자신에 대한 거의 유일한 정보이자, 반복해서 강조되는 정보는 결혼과 성애 관계에 대한 부정적 가치관이다.

(A) 나도 물론 - 나 자신은 그때부터도 결혼은 안 할 주의였습니다만 - 언니의 경사를 축하할 의무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김정수의 넘나 흥분한, 극도의 환희를 감당 못 해하는 긴장한 얼굴을 그전날도 보고 있는 터이므로, 그날 아침 같은, 또 **너무도 태연한 언니의 표정**은 무엇인지 막연한 불안을 언니 위라기보다 김정수의 운명 위에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부자연한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기는 인간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만 한다는 생각 그 자체가 원체는 부자연한 것인지라 나는 그 부조화를 더 깊이 생각하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⁴⁴⁾

43) 차미령, 앞의 글, 432면.

44) 강신재, 「향연의 기록」, 김은하 엮음, 『강신재 소설 전집』, 현대문학, 2013, 112면.

(B) 한 남성이 자기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하는 단 한 가지 발바탕 위에다가 인생의 온갖 현상을 가치지어 가야 하는, 위태롭기 짝이 없는, 또 동시에 의미도 없는 삶의 방식에, 나는 애초부터 찬성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 길을 택한 이상에는 역시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⁴⁵⁾

인용문(A)에서는 결혼을 필연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부정적 태도가, (B)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가부장제 하의 결혼 제도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이러한 가치관은 이 소설의 서술의 배면을 형성하게 되며, 여러 남성과 복잡한 성애 관계를 형성하며 마침내 파국을 맞이하는 언니의 형상이 서술자 자신의 가치관에서 비롯된 편향된 해석의 결과일지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며, 신뢰할 수 없는 서술에 대한 고려 속에서 이 소설을 다시 독해할 것을 요청한다.

서술자 자신의 가치관이 이 소설의 서사를 특정한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언니가 인민군 장교와 함께 북으로 떠나는 장면에 대한 서술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그 시선을 따라 마루 앞을 보니까 키 큰 괴뢰군이 권총을 언니 가슴에 겨누고 있질 않겠습니까. 옆집이 타오르는 붉은 불빛에 비치어 그 광경은 무슨 괴로운 악몽의 한 장면같이 떠올라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악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려고 하였습니다. 그 찰나에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내가 거길 가요? 어떻게…….” 보통 때보다 더욱 느릿느릿, 땅 위에 떨어듯 구울리듯 하는 그 목소리에는 아무런 공포도 섞여 있지 않을뿐더러 오히려 고무볼 같은 탄력과 교태 비슷한 음향조차 섞여 있지 않겠습니까. 언니는 절체절명의 궁지에서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본능적

45) 강신재, 위의 글, 114면.

으로 그런 교태를 부린 것일까요. 내가 놀라고 있는 사이에 그 사나이는 언니의 어깨를 왈살스럽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니까 흘깃 언니의 흰 이가 보였습니다. 그는 안기면서 눈을 감고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⁴⁶⁾

사랑하는 여성을 총으로 위협하며 월북을 강요하는 공산주의자 남성은 앞서 살펴본 「산기슭」에서도 동일하게 등장한다. 그러나 「산기슭」에서 남성 인물이 ‘인민군’으로 호명되며 애정의 대상으로 형상화되었던 것과 달리 이 소설에서는 공포스럽고 두려운 ‘괴뢰군’으로 형상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동일한 서사적 설정을 공유하고 있는 장면이 ‘괴로운 악몽의 한 장면’으로 서술되는 것은 이 장면이 사랑에 빠진 인물의 내면이 아닌, 그 사랑을 위협한 것으로 바라보는 서술자 자신의 두려움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려움 속에서 언니가 구사하는 교태를 생존을 위한 전략으로 해석해보고자 하지만, 결국 서술자가 확인하는 것은 사랑에 빠져 기꺼이 월북을 감행하는 언니의 모습이다. 이러한 언니의 모습까지가 서술자의 악몽을 구성하는 일부인 것이다.

이렇듯 서술자 자신의 가치관이 사건에 대한 해석을 결정짓고 있다는 점에서 언니의 최후 역시 서술자 자신의 잘못된 해석으로 독해될 여지가 있다. 우선 이 소설에서 언니의 최후가 확정적 사실이 아닌 ‘노말해 보이지 않는’ 김정수의 모습으로부터 추정된 서술자 자신의 상상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⁴⁷⁾ 언니의 최후가 사실의 보고가 아닌 서술자 자신의 상상적 재현으로 형상화되고 있기 때문에, 해석되어야 하는 것은 언니의 죽음이라는 사건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을 상상하는 서술자 자신의 내면이다. 그렇다면 언니의 상상된 최후는 성애적 결합을 남성에게 위탁하는

46) 강신재, 위의 글, 128-129면.

47) 김양선은 이 소설의 결말을 “자신의 섹슈얼리티로 괴뢰군 장교를 유혹하고, 결국 그에게 납치되듯 끌려가서, 철원 즈음에서 미친 여자로 김정수에게 발견되어 죽임을 당한 것으로 나온다.”라고 분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언니의 최후가 서술자의 상상으로 제시되고 있는 서술 양상을 간과한 해석으로 재고될 필요가 있다. 김양선, 앞의 글, 274면.

‘위태롭기 짝이 없는’ 삶으로 규정하고 있는 서술자 자신의 비판적 인식이 투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소설의 결말은 여성이 남성에게 귀속되고, 남성을 통해 특정 체제에 편입됨으로써 여성의 주체성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체제 적대 현실의 가부장제 매커니즘에 대한 공포와 거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언니의 최후가 사실에 대한 보고가 아닌 서술자의 상상으로 처리됨으로써, 이 결말 자체가 서술자의 잘못된 해석일 수 있음이 암시되며 언니의 주체성 역시 온전히 보존된다. 이것은 김정수에 의해 마지막으로 목격된 언니의 모습이 전장에서 꽃잎을 뜯어 꽃 점을 보는, 예의 ‘전시에 상응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통해 확인된다. 이 소설은 한국 전쟁기 여성에게 요구되는 속박에 구애받지 않는 여성 인물과 그 인물을 형상화하는 여성 서술자의 목소리를 통해, 전후 반공주의와 가부장제의 공포에 대한 초월과 거부의 방식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5. 나가며

공산주의자 남성과 성애 관계를 형성하는 문제적 여성인물이 등장하는 강신재의 50년대 단편들은 지배담론에 대한 위반의 서사로 읽히는 한편, 인물들이 공산주의와 연루되는 설정의 서사적 기능과 미학적 효과가 해석되지 못함으로 지배담론을 옹호하는 서사로 독해되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해석적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까지 연구사에서 지배담론과의 관계가 문제시 되어온 소설들이 공통적으로 동종 제시 소설임에 주목하여 서술(자)의 신뢰성 문제를 중심으로 강신재의 50년대 단편에 대한 독해를 시도하였다.

2장에서는 월북하는 여성 인물이 등장하는 일련의 단편 중 가장 먼저

발표된 소설로서 이러한 유형의 여성 인물의 원형이 간직되어 있는 소설 「산기슭」의 내러티브 장치를 분석하였다. 이야기 밖 서술자와 인물 자신의 목소리 사이의 경합을 통해 이 소설이 문제시 하는 것은 특정 체제 자체가 아닌, 정체성의 진실이 보존될 수 없는 체제 적대의 현실 그 자체임을 규명하였다. 이를 통해 내러티브 장치에 대한 이해 속에서 공산주자와 관계 맺는 여성 인물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형상이 명확하게 규명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표선생 수난기」와 「포말」을 대상으로 잘못된/불충분한 보고에 의해 서술(자)의 비신뢰성이 초래되며, 표면적 서술과 충돌하는 해석적 가능성들이 산출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두 소설에서 서술자의 보고가 잘못되었거나 불충분할 수 있음이 암시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여성 인물의 부역과 성적 방종이 연동되어 있는 서술의 신뢰성이 문제시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를 통해 지배체제에 대한 위반이 성별화됨으로써 가부장제와 반공주의 지배담론이 상호 강화되는 매커니즘을 의문시하는 정치적 효과가 발생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4장에서는 「제단」과 「향연의 기록」을 대상으로 잘못된 평가와 잘못된 해석에 의해 초래되는 서술(자)의 비신뢰성과 그 미학적·정치적 효과를 살펴보았다. 먼저 「제단」의 경우 전쟁 중 성규범을 위반한 여성 인물의 가정으로의 귀환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서술자 자신의 모성 규범에 대한 위반으로 귀결됨으로써 두 유형의 위반이 상호보완적으로 전후 가부장제에 대한 비판을 수행하고 있음을 규명하였다. 「향연의 기록」의 경우 여성의 주체적 성애 관계의 귀결이 파국으로 상상되고 있는 것은 종속적 성애 관계에 대한 서술자 자신의 비판적 가치관의 개입으로 인한 해석의 오류이며, 이것이 상상으로 처리됨으로써 서술자 자신의 두려움과 공포가 드러나는 동시에 문제적 여성 인물의 주체성 역시 보존되고 있음을 밝혔다.

공산주의(자)와 연루되는 여성인물이 등장하는 강신재의 50년대 단편에서 서술자의 목소리는 인물의 목소리에 의해 재의미화되거나, 보고, 평

가, 해석의 차원에서의 오류로 인해 서술된 것 이면을 지시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할 수 없는 서술은 성규범의 위반이 적치하의 부역과 연동되어 윤리적 타락으로 귀결되는 매커니즘을 의문시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 점에서 강신재 50년대 단편은 반공주의 지배담론과 가부장제의 공모에 대한 문학적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강신재의 50년대 단편의 정치성에 대한 이 글의 분석은, 『임진강의 민들레』의 주인공 이화의 죽음을 통해 구현되는 비-전체적 주체의 형상, 『오늘과 내일』에서 발견되는 5.16이후 체제 내화된 4.19서사를 의문시하는 시선에 대한 논의와 일정한 관련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강신재 문학의 연속성을 설명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글은 강신재 문학이 내러티브 장치의 효과를 통해 문학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대 현실에 대응하고 있는 양상을 분석함으로써, 냉전기 한국 문학의 현실 대응 양상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 강신재, 「산기슭」, 『신천지』, 1954.3.
강신재, 「포말」, 『현대문학』, 1955.3.
강신재, 『旅情』, 중앙문화사, 1959.
강신재, 김은하 엮음, 『강신재 소설 선집』, 현대문학, 2013.
경향신문, 조선일보

2. 단행본

- 리몬 케넌, 최상규 역, 『소설의 시학』, 문학과지성사, 1985.
웨인 부스, 최상규 역, 『소설의 수사학』, 예림기획, 1999.
제임스 펠란, 피터. 라비노비츠 엮음, 최라영 역, 『서술 이론 I』, 소명출판, 2015,
시모어 채트먼, 한용환 옮김,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이야기와 담론』, 푸른사상,
2003,
H.포터 애벗, 우찬제 외 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3. 논문

- 강지윤, 「비-진체」를 사유하기:한국 교양소설의 젠더-1960년대 한국전쟁 서사를 중심으로, 『구보학보』 28, 구보학회, 2021.
강지희, 「1960년대 여성 장편소설의 수행성연구-강신재와 박경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2019.
강창부, 「6·25전쟁기 「전시생활개선법」과 후방의 ‘생활동원」, 『민족문화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0.
구인환, 「現代女流作家의 技法」, 『아세아여성연구』 9,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문재연구소, 1970.
김복순, 「1950년대 여성소설의 전쟁인식과 ‘기억의 정치학’ -강신재의 초기단편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한국여성문학학회, 10호, 2003.
김미현, 「서정성, 감각성, 여성성」, 『현대문학의 연구』 8, 한국문학연구학회, 1997.
김양선, 「전후 ‘감상적’ 여성소설의 계보」, 『여성문학연구』 36, 한국여성문학학회, 2015.
김은하, 「유미주의자의 글쓰기와 여성 하위주체들의 욕망」,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20, 2009.
김은하, 「1950년대와 나쁜 여자의 젠더 정치학」, 한국여성문학학회, 『여성문학연구』,

- 50, 2020.
- 김주리, 「4.19의 서발턴과 강신재의 오늘과 내일」, 『현대문학이론연구』 87, 현대문학이론학회, 2021.
- 김현, 「감정의 점묘화가 강신재론」, 『한국단편문학대계』 8, 삼성출판, 1969.
- 나보령, 「강신재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3.
- 박보름, 「'4.19'와 '4.19'가 아닌 것 - 강신재 『오늘과 내일』론」, 『한국현대문학연구』 74, 한국현대문학학회, 2024.
- 박형서, 「서술의 신빙성 연구」, 『우리어문연구』 52, 우리어문학회, 2015.
- 복경연, 『한국전쟁기 잔류파 여성 문인의 전쟁 기억과 젠더 정치』,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4, 71면.
- 손유경, 「유년의 그로테스크: 1950~60년대 강신재 단편소설의 한 원천」, 『국제한인문학연구』 39, 국제한인문학회, 2024.
- 심진경, 「전쟁과 여성 섹슈얼리티」, 『현대소설연구』 39, 한국현대소설학회, 2008.
- 염무웅, 「팬터마임의 美學: 康信哉論」, 『현대한국문학전집』, 신구문화사, 1967.
- 이임하, 「한국전쟁이 여성생활에 미친 영향- 1950년대 '전쟁 미망인'의 삶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8, 역사사학연구소, 2003,
- 차미령, 「적(敵)과의 동거-1950년대 강신재 소설의 전쟁 부역자 문제에 주목하여」, 『우리말글』 87, 우리말글학회, 2020.
- Phelan, J. and Martin, M. P., "The Lessons of Weymouth!: Homodiegesis, Unreliability, Ethics and The Remains of the Day", D. Herman(ed.), *Narratologies: New Perspectives on Narrative Analysis*, Columbus: Ohio State University Press, 1999.

<Abstract>

Unreliable Narration in Kang Shin-jae's 1950s Short Stories

Park, Boreum

This paper examines Kang Shin-jae's short stories from the 1950s, which feature female characters involved with communism or communists, through the analytical lens of narrative reliability. By doing so, it aims to illuminate how her fiction responds to the postwar hegemonic discourse of anti-communism and its collusion with patriarchy. The study first analyzes heterodiegetic narratives featuring similar character types to explore how different levels of narration produce varying degrees of reliability. It then turns to four homodiegetic narratives to investigate how unreliability emerges at the levels of reporting, evaluation, and interpretation, and discusses the aesthetic effects of unreliable narration in each case.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demonstrates that Kang's use of unreliable narration functions to question the ideological mechanism that links violations of sexual norms with collaboration during the occupation and, ultimately, with moral degeneration. The findings reveal that Kang Shin-jae's 1950s literature mounts a literary intervention against the collusion between dominant discourse and patriarchy by employing the aesthetic strategy of unreliable narration.

Key words: Kang Shin-jae, 1950s Korean literature, anti-communism, unreliable narration, homodiegetic narration, postwar literature

투 고 일 : 2025년 5월 26일

심 사 일 : 2025년 6월 10일

게재확정일 : 2025년 6월 24일

수정마감일 : 2025년 6월 28일